

## 제16장 해방 후 사역- II



천혜경로원 가족

강순명 전도자는 1952년 3월 23일(주)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현 학동교회)를 설립하였고, 3월 27일(목) 버림받아 갈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아들로 살고 싶어서 천혜경로원[天惠敬老院, 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20(학동)]이라는 양로원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를 접목한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때 동석기 선교사는 기부금을 보내오는 등 물심양면으로 강순명을 도왔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매월 지원금을 보내오도록 모금을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자 강순명은 동석기를 천혜경로원 법인 이사로 추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배려하였다. 당시 동석기와 천혜경로원과의 관계에 대

하여 『동아일보』(1955.9.16.)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경로원 가족과 동석기, 최수열 선교사와 함께

“광주 ‘기독교양로원(천혜경로원)’ 이사 동석기 씨(75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75)도 1955년 9월 15일(목) 본사를 방문하여 윤 노인을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다.”  
[『동아일보』(1955.9.16.), ‘윤 노파’.]

둘째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여 침례를 받고, 신학을 한 순수 혈통의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 최초 전도자였던 이흥식[李興植, 1912.6.22.~1991.1.19.] 장로이다.

이흥식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몸져누워 고생하고 있던 1930년 10월 어느 날 양석문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었으며, 동석기 선교사에게 구원의 침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수동교회(水東基督の教會)를 출석하였으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이 되자 동석기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수동교회를 관리하도록 맡기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이북 공산당들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므로 이홍식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1963년 동석기 전도자 귀국 환영식

이때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홍식 집사는 1947년 2월 21일(금) 새벽 4시 부모와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단신으로 북청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북청을 떠난 지 13일만인 3월 5일(수)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제일 먼저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동석기 선교사와 기쁨의 상면을 하게 되자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때부터 이홍식은 내수동교회를 출석하였으며, 집사로 헌신하면서 동석기 선교사의 제자가 되어 전도자 훈련을 받았다.



청량리교회 예배당(뒷줄 오른쪽 이홍식, 동주급)

이홍식 집사는 동석기 선교사의 후원으로 1947년 4월부터 Christian Church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 성서신학교[Korea Christian Bible Seminary, 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26-2(신사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신학생이던 이홍식은 1948년 5월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전도자

의 길을 걸었다. 이때 홀로 월남하였기에 가정이 없었던 그는 이복의 가족과 아내를 생각하며, 봉헌된 독신(consecrated celibacy)으로 동정(virginity)을 지키며 순결(chastity)한 전도자의 생을 시작하였다.

이홍식 장로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는 동석기 선교사의 후원으로 10여 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1개 교회만 후배 전도자에 의해 문을 닫았을 뿐, 9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며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10여 명의 사역자를 길러낸 지도자로 동석기 이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후배 전도자들이 아우들이요, KC대학교 학생들이 손자와 손녀들이었다.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KC대학교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청량리교회 예배당

이렇게 헌신적으로 독신 전도자의 생을 살았던 이  
홍식 장로는 1980년 6월 15일(주) 한국 그리스도의 교  
회의 모든 공직에서 은퇴(隱退)하였다. 이어 후배들에  
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교역자 협의회, 교회법  
인(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학교법인(KC대학교, 등  
춘중학교) 등 모든 것을 부탁한 후에 지병(持病)인 당  
뇨병(diabetes mellitus)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  
다. 그는 떠나면서 “건강을 회복하면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으나 1991년 1월 19일(토) 79년의 세월을 살  
고 우리 곁을 떠났다.

셋째는, 강순명 전도자를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면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부산 동서대학교를 설립  
하고,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하  
였던 장성만[張聖萬, 1932.11.2.~2015.12.6.] 박사이다.

동석기 선교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지도자  
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 미문화원에서 ‘청년 복음화 대  
성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 일본사람보  
다 더욱 위대한 민족이 되는 길로 달려가자고 역설하  
였다. 이때 이 대회에 참석하였던 장로교회 출신의 한  
청년 전도사를 지도자로 발굴(發掘)하는 성과를 얻었

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교회(Christian Church)의 지도자였던 장성만 박사이다. 당시 장성만은 장로교회 신학교 학생이었으나 환원한 것이다.



장성만 박사[부산디지털대학교]

장성만 박사는 교육자로 동서학원 산하에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2동)], 경남정보대학교[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주례2동)], 그리고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주례2동)] 등을 설립하여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정치인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는데, 장성만은 동석기 선교사와의 만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됐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동석기 목사님이였다…。 그때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 목사님의 메시지는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성서 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순수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주의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을 기념하며, 세례 대신 침례를 정례화합니다.’ 동 목사님의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광야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머릿속에 그려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였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록했다.” [장성만(2010), 『빌사일삼』, 국민일보, 29~30]

장성만 박사는 환원 후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현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와 합병)를 출석하여 집사로 헌신하였다. 그리고 강순명 전도자가 부임해 오자 그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는데, 장성만은 강순명을 가장 존경하는 ‘참스승’으로 받들어 섬겼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을 받았기에 스승을 닮으려고 노력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스승은 나에게 인생과 신앙과 학문을 일깨워준 분이다. 그는 이론만의 스승이 아니고 인격과 생활을 통하여 교훈을 남긴 참 스승이었다……. 마치 사두 쉰다싱(Sadhu Sundar Singh)을 방불케 하는 성자였다.”  
[장성만(1975), 『피리를 불어도』, 민석문화사, 83~84.]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이 교회개척을 위해 광주로 떠나자 장성만 집사는 1953년 1월 3일(토) 자신의 집 2층을 예배당으로 삼아 7명의 교인과 함께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교교회는 현재 Christian Church에 소속되었으며, 부산 동서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교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장성만 박사는 2015년 12월 6일(주) 83년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장성만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왜? 동석기 전도자와 교제를 중단하게 되었을까?

또한 1954년 당시 주한 미군이었던 빌 램지[Bill Ramsey, 성경통신교육원(BCC) 설립자] 선교사는 미국인 최초 선교사인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에게 왜? “장성만 형제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을까? 그때 리치슨은 장성만을 만났을까? 그리고 동석기 선교사와 장성만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무

엇보다도 왜? 장성만은 동석기와 강순명 전도자의 영향을 입었는데, 언제부터 Christian Church에 소속하여 활동했을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필자는 장성만 생전인 2012년 8월 부산에 내려갔지만, 만나기를 사양하므로 돌아온 적이 있었던 일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서대학교(전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동서대학교 홈페이지]